

정도령의 범신론적(汎神論的) 이신병존설(二神並存說)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창궐하고 있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의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제대로 된 앞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있었던 주희의 이기철학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 오늘날 정도령의 범신론적(汎神論的) 이신병존설(二神並存說)을 살펴본다.

주희(朱熹)의 이기철학(理氣哲學)

송대에 이르러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 그리고 장재(張載)의 사상을 집대성하여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이기철학(理氣哲學)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주희(朱熹)였다. 주희(朱熹)에 의하면, 기(氣)는 본래 유동적·활동적 이어서 원초의 혼일적(渾一的) 기(氣)는 음양(陰陽)으로 자체 분화되고, 그것은 다시 오행[五行: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으로 갈라진다.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는 음양오행이 서로 갈등, 조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기(氣)의 이 같은 운동과 변화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 주희는 이러한 정합적 질서에 이(理)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우주를

주재하는 원리인 이(理)는 흠없이 선하고 완전하기에 세계는 본래 조화롭고 질서가 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도식에 따르면 인간의 육구와 의지로서의 기(氣)에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 인간의 '표현' 전체를 전면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인간사의 불합리와 모순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理)를 실현해야 할 이념으로 설정한 다음, 타고난 기질(氣質)을 그에 비추어 제재, 간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자학의 표어는 '성즉리(性即理)'이다. 기(氣)가 아니라 이(理)가 인간과 만물의 본성을 구성한다. 이(理)의 구체적 내용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니 그 실현에 힘쓰라고 권했다.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기(氣)의 자연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질서인 이(理)'와 '도덕적 요청으로서의 이(理)'는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주장하였다. - encykorea.aks.ac.kr/Article/E0008105

정도령의 범신론적(汎神論的) 이신병존설(二神並存說)

신이 물질이요, 물질이 곧 신이다. 이 세상 만물이 신이요, 신 자체가 곧 만물인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신인데,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 두 종류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과 마귀의 물질이라는 두 종류의 물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다.

하나님의 물질은 생명의 물질이요, 마귀의 물질은 곧 사망의 물질이다. 이 세상에 있는 흠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쇠도 신이다. 원래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했으니, 물질 자체가 바로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창궐하고 있는고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원자(atom)인데, 전자(음양의 신, 마귀)가 중성자(하나님의 신=무극의 신이요 중성의 산물) 가두어 놓고 핵을 중심으로 해서 뱅뱅 뱅뱅 돌아가고 있다. 인간 또한 '나'라는 주체의식(이기적이고 욕심의 영인 악령)이 하나님(희생적이고 양심의 영)을 마귀의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타고르, 게오르규도 한국을 칭송했다!!!

옛날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말하기를,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죠? 동방의 빛이 된다는 게 바로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루마니아에 게오르규라는 소설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장차 대한민국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 없죠?

구세주 말씀 중에서㉔

불별더위를 피해 실내 에어컨으로 방콕하면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요가 수련으로 내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아 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강화해서 아프고 무시고 빠르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동작을 시작해 보실까요?

효능: 머리를 맑게, 허벅지 안쪽을 자극 혈액순환 도움. 무릎과 허리의 관절을 치유하고, 골반을 바르게 잡아준다.



동작②



동작①



동작③



동작④

간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꾸준히 수련하면 간장 기능이 치유된다.

동작①: 앞으로 굽히기 자세~

왼발을 접고 앉아서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 발바닥을 감싼다. 숨을 마시며 상체를 일으킨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②: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양손을 머리 뒤에 얹어 숨을 내쉬며 상체를 오른쪽

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마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박쥐 자세~

양 다리를 좌우로 펴고 허리를 세워 앉는다. 발끝을 안으로 당긴다. 양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숨을 내쉬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며 긴장을 푼다. 10초 유지 3회.

동작④: 양손으로 무릎 또는 발끝을 잡고 숨을 내쉬며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내린다. 숨을 마시며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며 긴장을 푼다. 10초 유지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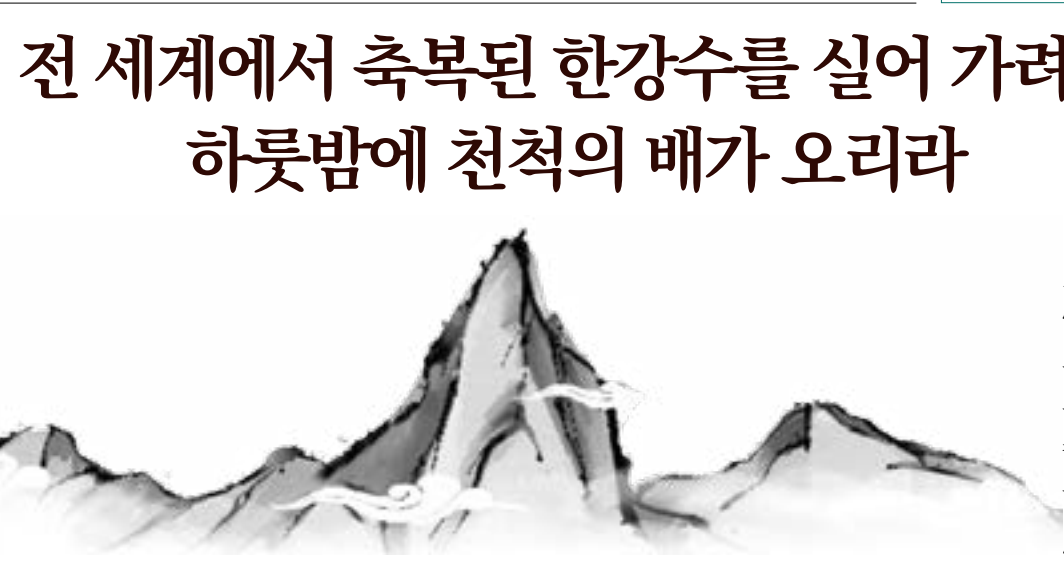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77회

歌儼總論(四) 가사총론

自古及今預言中 Zahlung예언중에多數秘文 다수비문인치마는孔孟詩書儒士 공맹사서유사들이西瓜外証不味內 사과외지불미내라 儒佛運去儒佛來 유불은거유불래니何佛去而何佛來 하불거이하불래요 兔丈水火能殺我 도장수화능살야요 斥儒尚佛是從金牛 척유상불사증금우 似人不人從金之理 사인불인증금지리 東西合運十勝出 동서합운십승출을 無無中有有中無無 무무중유유중무무 無而爲化天運 무이위화천운으로 雪氷寒水解結 살빙한수해결되고 萬國江山春花來 만국강산춘화래라 尙佛來運三불래운 運數운수조타 三聖合運一人出 삼성합운일인출을 末世愚盲蠢瞶臃 말세우맹준고몽몽 禍國興亡如草芥 사국흥망여초개로 父子爭財夫妻離離 부자쟁재배처이혼 情夫視射寡婦生産 정부사사라부생산 淫風大行有夫之妻 음풍대행유부지처 背夫배부라니 末世말세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언서 가운데 비결문(秘訣文)이 많지만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을 공부한 선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여 글 속의 참뜻을 몰랐느니라. 말법시대에는 유불(儒佛)의 운이 다하여 가고 새로운 유불의 운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처가 가고 어떤 부처가 오는가? 소두무족(小頭無足=뺨=마귀=화火)은 어느 운에 당하는가? 토끼(卯兔)가 들어올 때 물로 불로 능히 나를 죽이는 운 즉 음란과 쾌락의 풍조가 세상에 횡행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할 때 그리고 병마가 덮쳐 능히 나를 죽이는 운을 당하니마귀의 장난으로 죽는다).



유(儒)를 배척하고 불(佛)을 숭상한다 함은 금운으로 오신 엄마와 같은 생미륵불을 따르는 것이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아닌 생미륵불을 따르는 것이 금운을 따르는 이치가 됨을 말하는 것이니라. 동(東)과 서(西) 즉 목운(木運 72공)과 금운(金運 81공)이 합하여 십승(十勝=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시니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는 유무형(有無形)의 밖의 도를 통하였음이라. 무이위화(無而爲化)의 천운으로 살빙한수(雪氷寒水)가 해결되고 만국 강산에 봄이 와서 온갖 꽃들이 피어나느니라(좁고 어두운 세상 즉 마귀의 죄악 세상은 끝이 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세상 즉 천당 극락세계로 변화된다는 뜻).

미륵불을 숭상하는 운이 오니 그 운수가 참으로 좋구나. 삼성(三聖) 합입된 한 사람이 나오시니 그분이 바로 미륵불이로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앞을 못보고 꾸물거리는 장난같이 흐리멍덩하여 나라의 흥망을 초개같이 여기느니라. 부자(父子)간에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부부(夫婦)가 이혼을 쉽게 하고 정부(情夫)를 탐하는 눈으로 보고 과부가 아이를 낳는 등 음란한 풍조가 크게 유행하느니라. 유부녀가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니 말세로다.

君弱臣强民嬌吏 군약신강민교리에 吏殺太守無所忌憚 이살태수무소기탄

日月無光塵霧漲天 일월무광진무창천 罕古無今大天災 하고무금대천재로 天邊地震飛火落地 천변지진비화락지 三災八亂并起時 삼재팔란병기시에 時시름아노 世人세인들아 三年之凶二年之災 삼년지흉이년지질 流行瘟疫萬國時 유행은역만국시에 吐瀉之病喘息之疾 토사지병천식지질 黑死枯血無名天疫 흑사고혈무명천질 朝生暮死十戶餘一 조생모사십호여일 山嵐海瘴萬人多死 산람해장만인다사 大方局手 대방국수업서 五運六氣虛事 오운륙기허사되니 無名惡疾免무명악질면할소나 當服奄麻常誦呪 당복암마상승주로 萬怪皆消海印 만괴개소해인일세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며 백성은 관리에게 아첨하고 관리가 태수(太守)를 죽이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 먼지 안개(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으니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느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늘의 대재앙(大

災殃)으로 하늘의 변괴(變怪)와 지진(地震)으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치고 삼재팔란(三災八亂)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아! 삼년간 흉년이 들고 이년간 괴질이 돌아 염병과 괴이한 전염병이 급속도로 만국을 휩쓸 때 토하고 설사하는 병과 천식과 같은 질병과 흑사병과 피가 마르는 이름 모를 천질(天疾)로 인하여 아침에 생생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으니 열 집 가운데 한 집만 겨우 살아남으리라. 산과 바다에 숨어있던 마귀의 독한 기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나 그 어떤 명의(名醫)의 이름난 처방도 소용이 없어서 오운육기(五運六氣)도 허사가 되니 이름 모를 악독한 질병을 어찌 면할 것이냐? 항상 멸마경(滅魔經)을 외우며 엄마(정도령)가 내려주는 해인을 받아먹어야만 모든 괴질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느니라.

狂風淫雨激浪怒濤 광풍음우격랑노도 地震火災不虞之患 지진화재불우지환 毒瘡惡疾殺人强強 독창악질살인강도 飢饉饑饉 飢饉아사여기저기 戰爭大風忽起 전쟁대풍홀기하야 自相踐踏哭哭聲 자상踐담호곡성에 安心安心莫測 世上世上일세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

三人一夕雙弓 삼인일석쌍궁알소 訪道君子修道人 방도군자수도인야 十勝福地弓乙 십승복지궁을일세 無道大病무도대병 걸인 者자들 不死海印 불사해인나왔네네

음란의 풍조가 세찬 비바람 속에 거센 물결과 성난 파도처럼 미친 듯 일어 세상에 유행하고 지진 화재 등 생각도 못한 우환이 생기며 독창(독한 괴부병) 악질이 돌고 살인강도가 만연하며 곳곳에 기근이 들어 굶어죽고 전쟁의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로 밟고 밟히어 죽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는 소리에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세상이니. 삼인일석(三人一夕)은 다했 수(修)자의 파자. 쌍궁(雙弓)은 궁궁(弓弓)을 의미한다. 말세에 목숨을 보전하려면 다했 수(修)자와 궁궁(弓弓=십승)을 알아보소. 도를 찾는 군자님들 수도인들이여 십승의 복된 땅이 궁을(정도령)일세. 무도대병(無道大病) 걸린 자들아, 불사영생의 해인이 나왔으니 한시바빠 알아보소.

무도(無道)라 함은 말과 행동이 막되어 먹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신하가 임금을 잊고 있는 것,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세상에 충효열(忠孝烈)이 없어 대병(大病=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병)에 걸린 것인 즉 대인대의(大仁大義)한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으면 대병이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니라.

和氣東風日盡悲 화기동풍구진비에 七年大旱 칠년대한비나리듯 萬國勝地江山下 만국승지강산하에 甘露喜雨民蘇生 감로희우민소생을

화기동풍이 불어오면(정도령이 오시어 불사영생의 진리가 세상에 퍼지면) 오랜 슬픔(쇠병사장을 면할 수 없는 슬픔)이 다하여 칠년대한(七年大旱)에 비 내리듯 만국의 십승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감로가 기쁜 비처럼 내려 민초들을 소생시키리라. 칠년대한에 대한 고사는 중국 상나라 시조인 탕 임금시절 칠년 동안 가뭄이 들어 비 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것을 말한다.

惡疾多死免 악질다사면하라고 全世騷動海運開 전세소동해운개로 一夜千艘出航時 일야천소출항시에 漢江水 한강수를시러가며 十勝物品海外出 십승물품해외출을 六六九月 육대구월아오리라

고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무수한 인명이 다 죽음을 면하려고 전 세계가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다의 운수가 열려 전 세계에서 배가 몰려오나니 하룻밤에 천척의 배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생명수로 축복된 한강수를 실어가며 십승(十勝) 물품이 해외로 나가게 되니 이는 육대구월(六六九月=戊戌)이 오면 알리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